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135-985, KOREA
Phone : 82-2-3210-2480~3 Fax : 82-2-3210-2488

브리지스톤, 패럴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십 체결 브리지스톤, 2024년까지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 활동 전개

세계 최대 타이어 및 고무 생산기업 브리지스톤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가 주관하는 패럴림픽 운동의 7 번째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가 됐다.

오는 2024년까지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이기도 한 브리지스톤은 이로써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후원하는 기업이 됐다.

패럴림픽 운동을 후원하는 기업 중 최상위 그룹에 파트너가 된 브리지스톤은 타이어, 타이어 서비스, 일부 차량 서비스, 자동차전거, 면진 베어링, 건축 및 산업용 제품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패럴림픽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브리지스톤은 '도쿄 2020 패럴림픽 경기'의 골드 파트너이면서 일본, 태국, 미국 패럴림픽의 후원사이기도 하다. 브리지스톤은 2020년 도쿄 패럴림픽 경기에 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훈련 중인 8명 자사 직원들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국제적인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너의 꿈을 쫓아라(Chase Your Dream)"라는 메시지를 홍보해왔다. 브리지스톤은 자사의 이런 핵심 메시지와 패럴림픽 운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앤드류 파슨스(Andrew Parsons) 위원장은 "브리지스톤이 국제패럴림픽의 7 번째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후원사가 된 데 기쁘기 그지없다. 브리지스톤의 '너의 꿈을 쫓아라'라는 슬로건은 패럴림픽 운동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열정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는 메시지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 중 하나는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즉,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135-985, KOREA
Phone : 82-2-3210-2480~3 Fax : 82-2-3210-2488

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다. 브리지스톤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함께 함으로써 전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브리지스톤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맺은 파트너 협정은 지난 3 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간에 새롭게 맺은 협약 이후 체결된 세번째 사례다” 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마사아키 츠야(Masaaki Tsuya) 브리지스톤 대표이사는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가 됨과 동시에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즉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노력을 브리지스톤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브리지스톤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고, 살아가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의 제품 및 서비스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다양성은 패럴림픽 운동에도 잘 나타나있다. 브리지스톤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귀감이 될 운동선수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쫓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패럴림픽 운동을 지원하는 방편의 하나로 브리지스톤은 자사의 타이어 및 고무 기술 전문성을 살려 일본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첨단 경기장비를 개발해오고 있다.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보철기구용 특수 고무창 및 장갑용 고무 그립들이 그 예다. 브리지스톤은 그룹내 브리지스톤 사이클과 브리지스톤 스포츠 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전거, 스포츠 용품 및 기술분석지원을 일본 장애인 사이클링과 휠체어 테니스 선수들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